
광주 '인사이트(Insight) 경제'

사단법인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61-42번지(3층)
T (062) 431-6339 F (062) 262-6340
<http://www.eccplus.co.kr>

《요 약》

▶ 경기지표

광주지역 11월 경기확산지수는 전월 4.0보다 소폭 하락하여 3.70을 기록함. 지난 6개월 동안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음. 각 지표들 또한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고 혼조세를 보임.

▶ 제조업 및 수출

광주지역 11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비 8.0% 상승하였으나 전월 28.7%에 비해 상승폭은 크게 감소함. 최근 생산지수의 큰 기복은 지역 내 제조업 중 가장 비중이 큰 자동차 제조분야 지표의 영향 때문임. 주요 업종별로는 고무 및 플라스틱만 소폭 상승했고 나머지 업종은 하락하는 모습임. 특히 자동차 제조업의 하락폭이 컸음.

▶ 내수

광주지역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지난달보다 크게 증가한 121.7로 인천광역시를 앞지름.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862억원으로 광역시 중 가장 낮음. 판매액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1.4% 상승하면서 지난달 큰 폭의 판매액 하락을 만회함. 소비자심리지수는 103으로 상승했으나 광역시 중 가장 낮음.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3.13%로 2개월 연속 하락함.

▶ 고용

광주지역 12월 실업률은 2.1%로 광역시 중 가장 낮음. 고용률은 58.2%로 전국 59.1%에 미치지 못하나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 자영업자의 수는 158천명으로 전월보다 3천명 감소, 임금근로자는 539천명으로 전월보다 6천명 증가함. 연령별로는 20세~59세의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60세 이상의 취업자는 감소함.

▶ 물가 및 가계

12월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1.4% 상승하여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함. 의류 및 신발, 주택가격의 상승과 수도·전기·가스 같은 공공요금의 인상, 음식 및 숙박업, 기타 상품 및 서비스의 물가상승이 요인임. 종합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년동월비 0.9%, 종합주택전세가격지수는 2.0% 상승함.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72.7%로 주요 광역시 중 가장 높으나 타 지역에 비해 전세가격의 움직임은 안정되어 있음.

▶ 가계부채

11월 광주지역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부채는 15조709십억원으로 전년동월비 6.7% 상승함.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부채 비중이 44.8%를 차지함. 기관별로 상호금융 53.8%, 신용협동조합 21.9%, 새마을금고 19.4%, 상호저축은행 4.4%의 비중임. 금융기관별 가계부채 증가율은 예금은행이 10.2%,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2.8%임.

▶ 투자확산지수

2014년 1월 투자선행지수는 14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경기지표들의 움직임이 일관되지 못하고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의 자금흐름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음.

▶ 집중분석 -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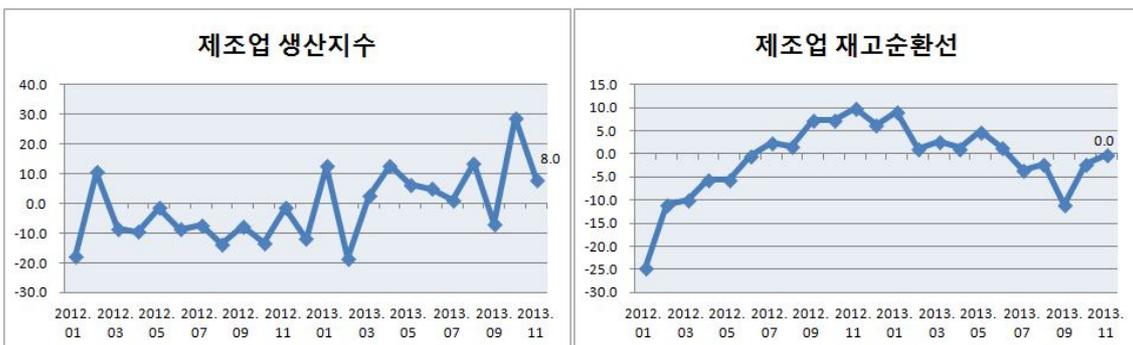
광주광역시의 고용지표는 50대 이상 여성들이 도소매 판매와 서비스업종에 창업 또는 상용근로자로 취직함으로써 개선되고 있고, 소득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됨. 반면, 20대에서 40대까지 남성의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고 소득증가율도 낮다고 유추할 수 있음. 특히 20대의 경제활동 위축은 광주광역시의 지속적인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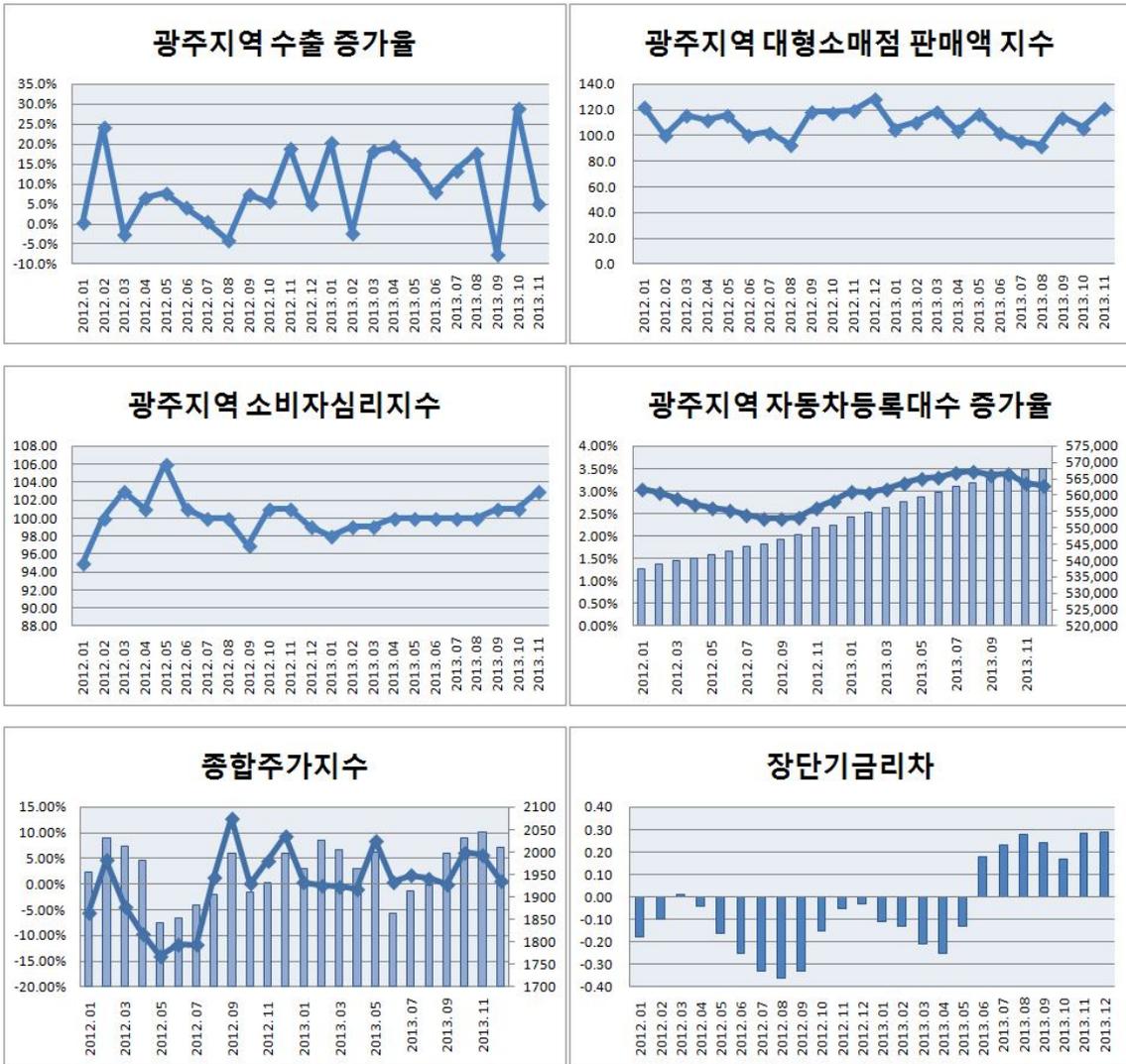
1. 경기지표

- 광주지역 11월 경기확산지수는 전월 4.0보다 소폭 하락하여 3.70을 기록함. 지난 6개월 동안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음. 각 지표들 또한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고 혼조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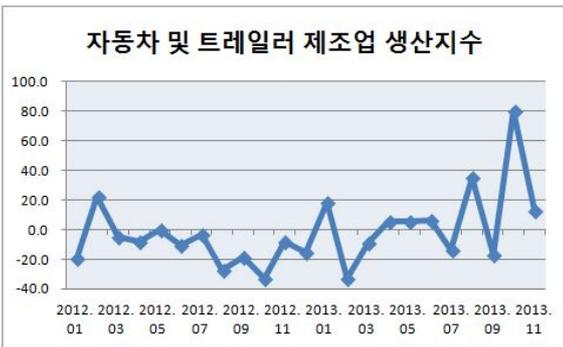
- * 광주지역 경기확산지수는 광주지역의 경기 동향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입니다. 생산, 수출, 내수, 금융 등 각 분야의 다양한 경제지표들을 선정·취합하였고 0에서 8사이에서 경기의 등락과 추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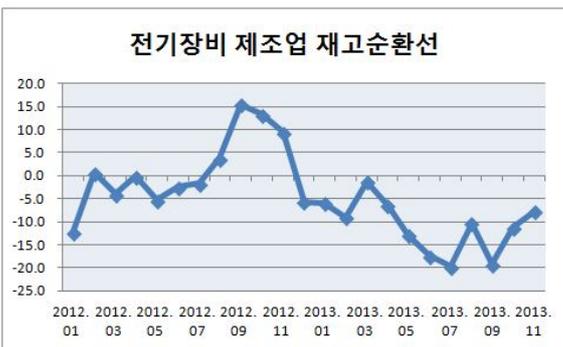


2. 제조업 및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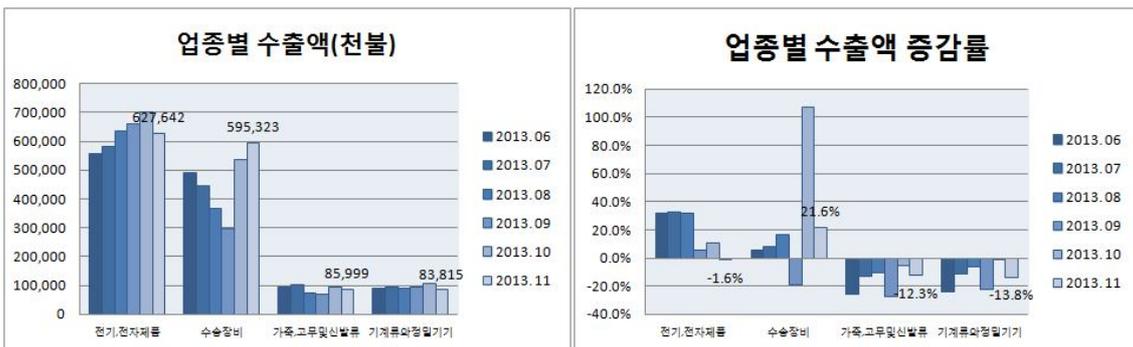
- 광주지역 11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비 8.0% 상승하였으나 전월 28.7%에 비해 상승폭은 크게 감소함. 최근 생산지수의 큰 기복은 지역 내 제조업 중 가장 비중이 큰 자동차 제조분야 지표의 영향 때문임.
- 주요 업종별로는 고무 및 플라스틱만 소폭 상승했고 나머지 업종은 하락하는 모습임. 특히 자동차 제조업의 하락폭이 컸음.



□ 광주지역 11월 제조업 재고순환선은 지난달 -2.3보다 소폭 상승한 0.0를 기록함. 자동차 제조업만 소폭 하락한 가운데 고무 및 플라스틱, 전기장비, 전자부품 제조업은 소폭의 상승을 이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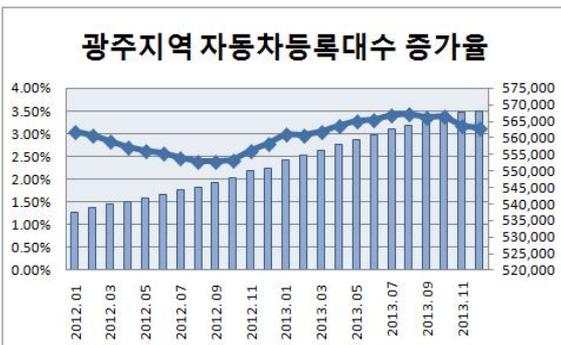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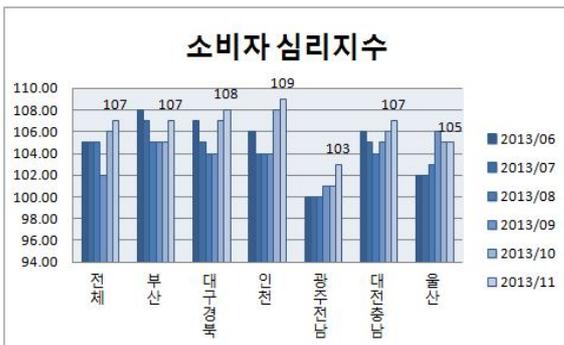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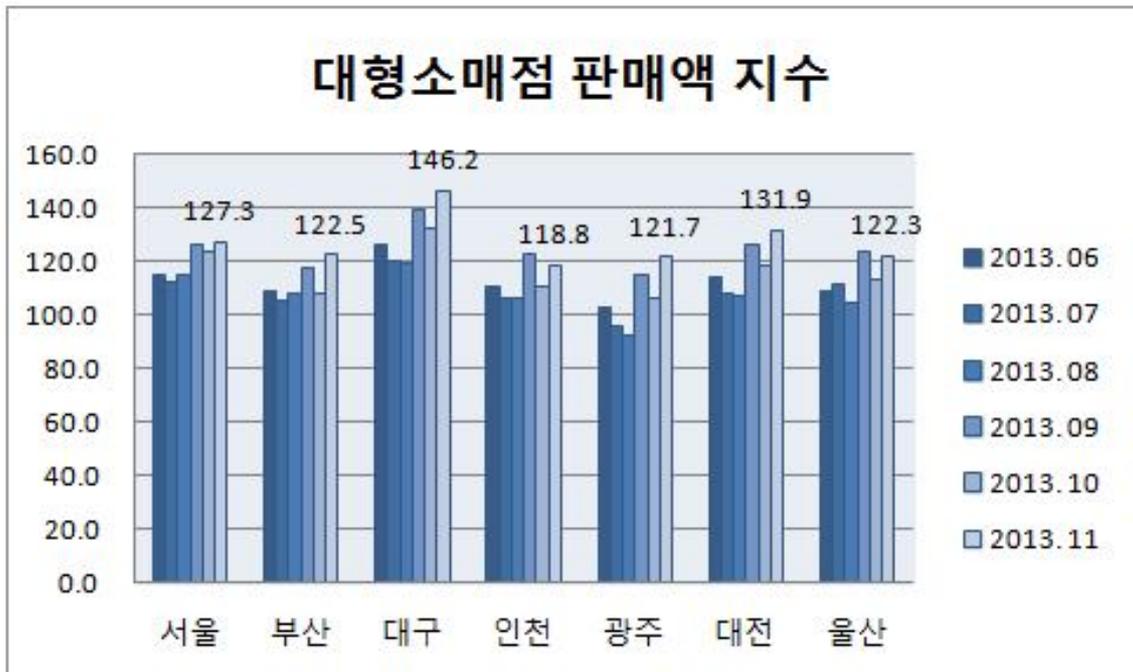


□ 광주지역 11월 수출액은 14억4419만달러로 전년동월비 5.0% 증가했음. 주요 업종의 수출액이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수송장비(자동차 제조업)만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이면서 전체 수출 증가율을 (+)로 끌어올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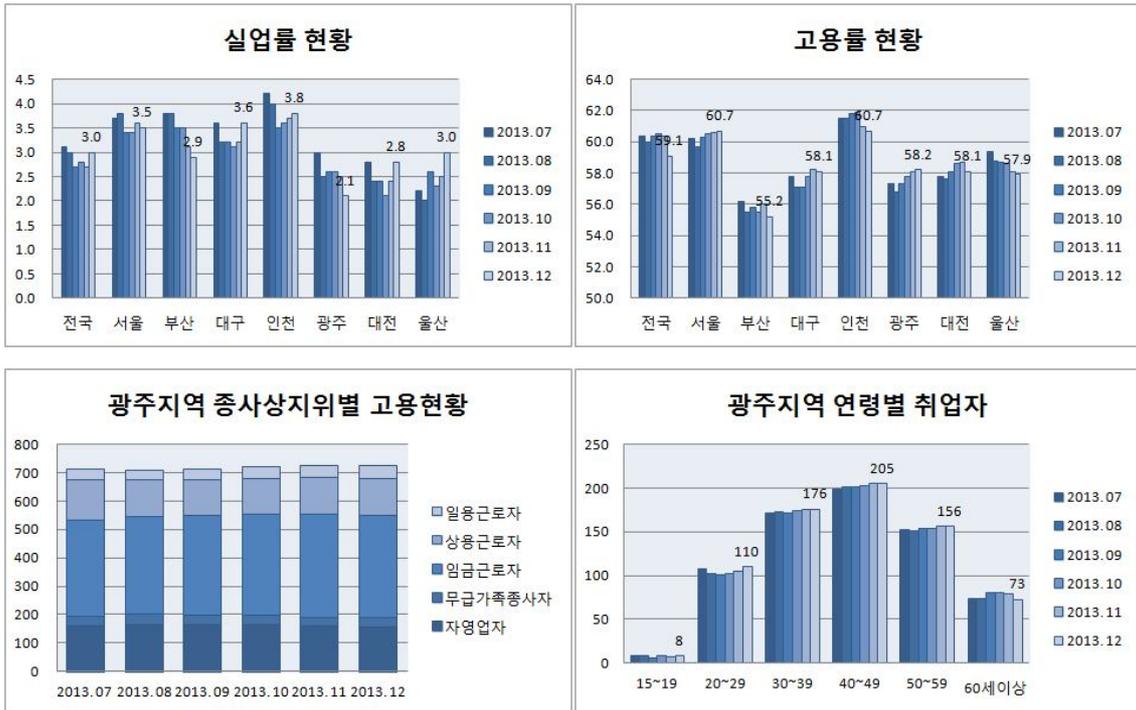
3. 내수

- 광주지역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지난달보다 크게 증가한 121.7로 인천광역시를 앞지름.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862억원으로 광역시 중 가장 낮음. 판매액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1.4% 상승하면서 지난달 큰 폭의 판매액 하락을 만회함.
- 광주지역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3으로 상승했으나 광역시 중 가장 낮음.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3.13%로 2개월 연속 하락함.
- 소매점판매액 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 모두 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내수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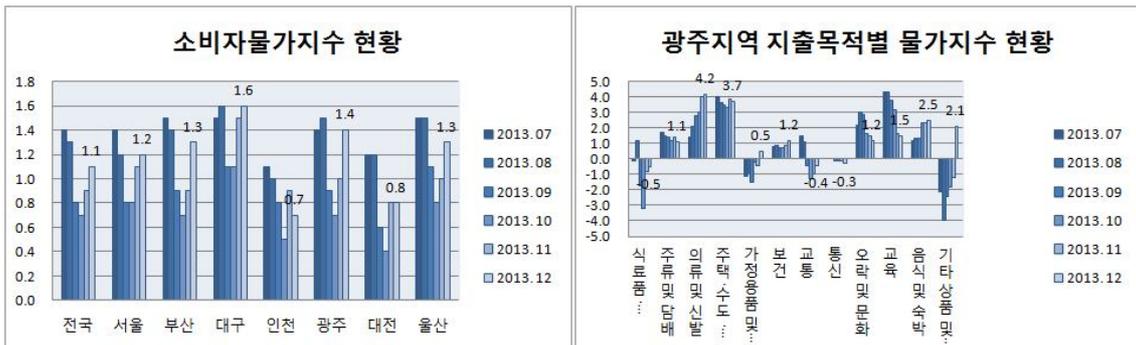
4. 고용

- 광주지역 12월 실업률은 2.1%로 광역시 중 가장 낮음. 고용률은 58.2%로 전국 59.1%에 미치지 못하나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 자영업자의 수는 158천명으로 전월보다 3천명 감소, 임금근로자는 539천명으로 전월보다 6천명 증가함. 연령별로는 20세~59세의 취업자수가 증가하였고 60세 이상의 취업자는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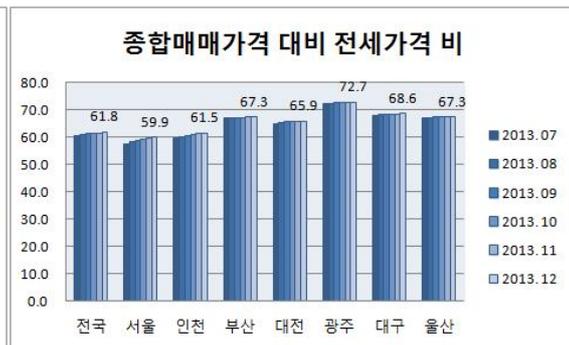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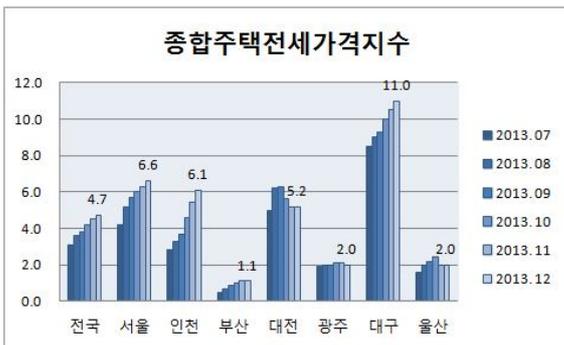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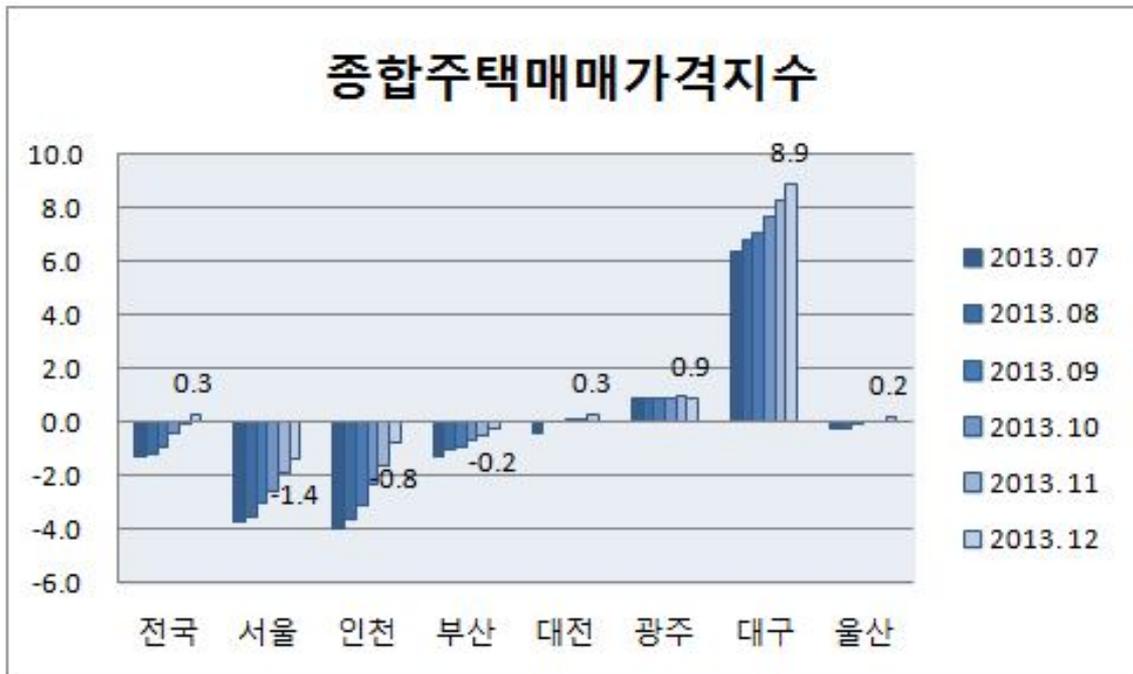


5. 물가

- 12월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1.4% 상승하여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함. 의류 및 신발, 주택가격의 상승과 수도·전기와 같은 공공요금의 인상, 음식 및 숙박업, 기타 상품 및 서비스의 물가상승이 요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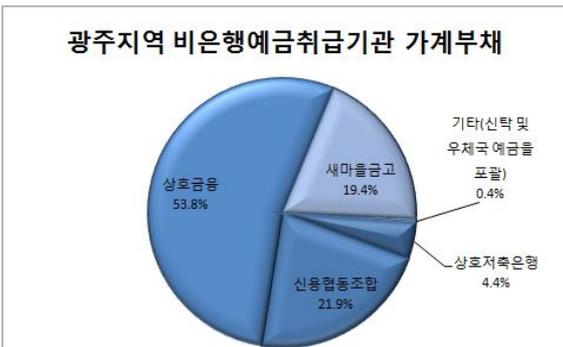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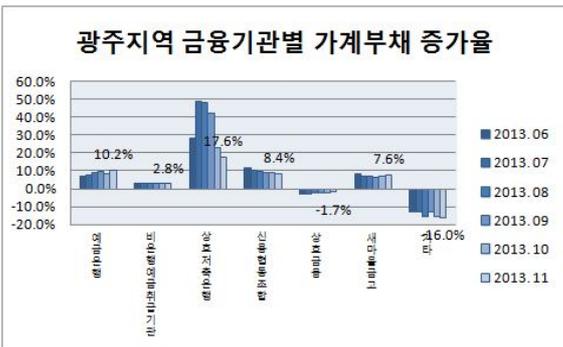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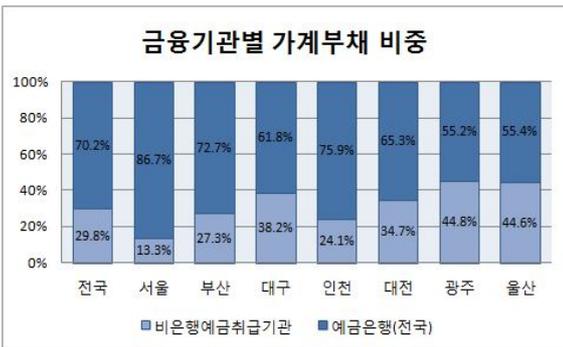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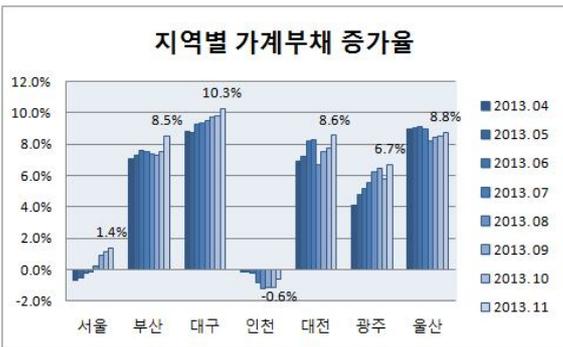


- 12월 종합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년동월비 0.9%, 종합주택전세가격지수는 2.0% 상승함.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72.7%로 주요 광역시 중 가장 높으나 타 지역에 비해 전세가격의 움직임은 안정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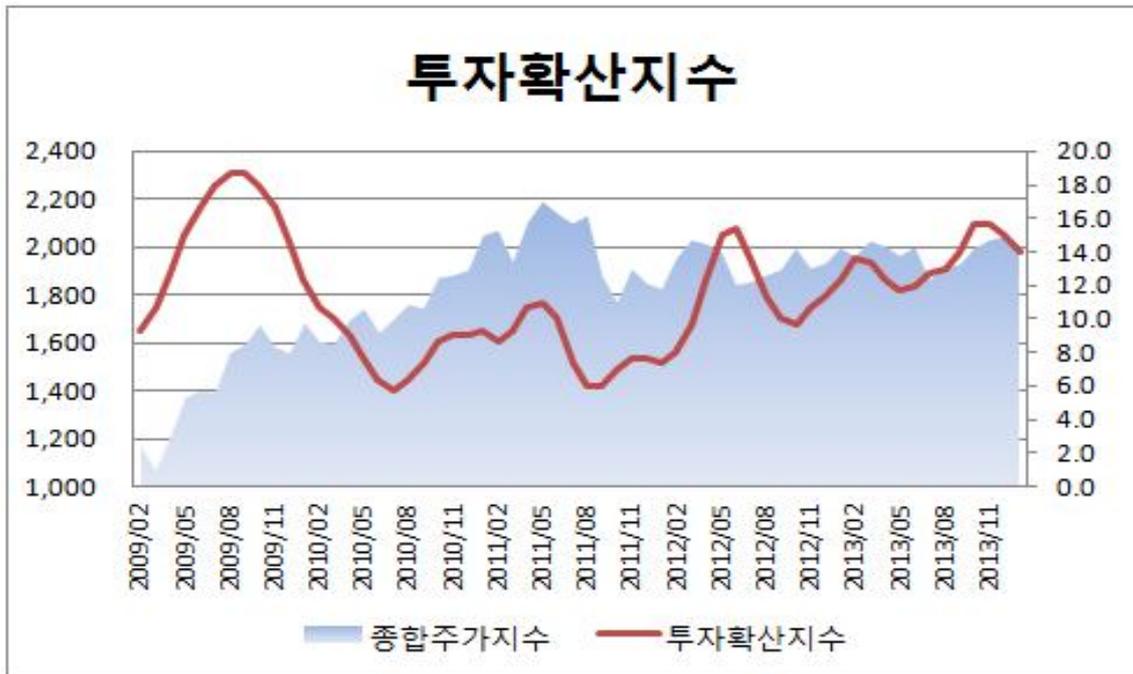
6. 가계부채

- 11월 광주지역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부채는 15조709십억원으로 전년동월비 6.7% 상승함.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부채 비중이 44.8%를 차지함. 기관별로 상호금융 53.8%, 신용협동조합 21.9%, 새마을금고 19.4%, 상호저축은행 4.4%의 비중임. 금융기관별 가계부채 증가율은 예금은행이 10.2%,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2.8%임.
- 전체적인 부채액은 낮은 수치이나 상대적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금융권을 제외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의 비중이 높은 점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함.



7. 투자선행지수

- 2014년 1월 투자선행지수는 14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경기지표들의 움직임이 일관되지 못하고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의 자금흐름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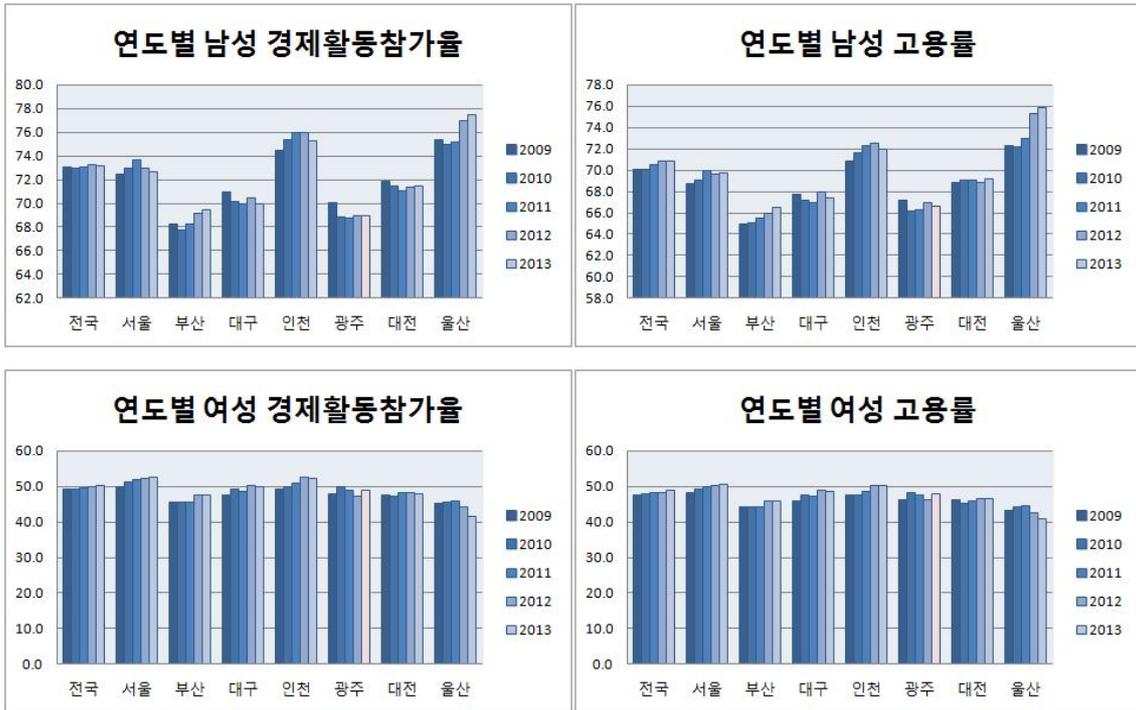
*투자결정에 있어 도움이 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제 및 금융시장 지표들을 선정해 만든 확산지수입니다. 투자확산지수의 상승 시 투자를 결정 또는 확대, 하락 시 투자를 철회 또는 축소하는 방식입니다.

8. 집중분석 -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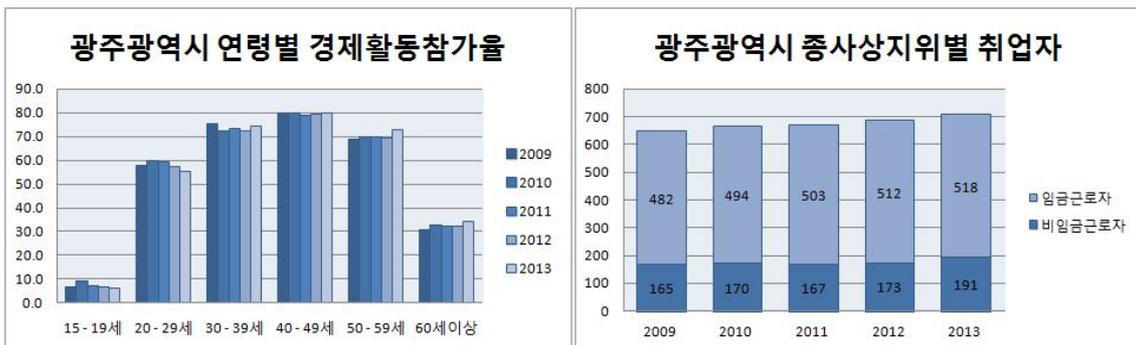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같은 기간 광주광역시도 타 광역시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상승이 더뎠지만 2013년에는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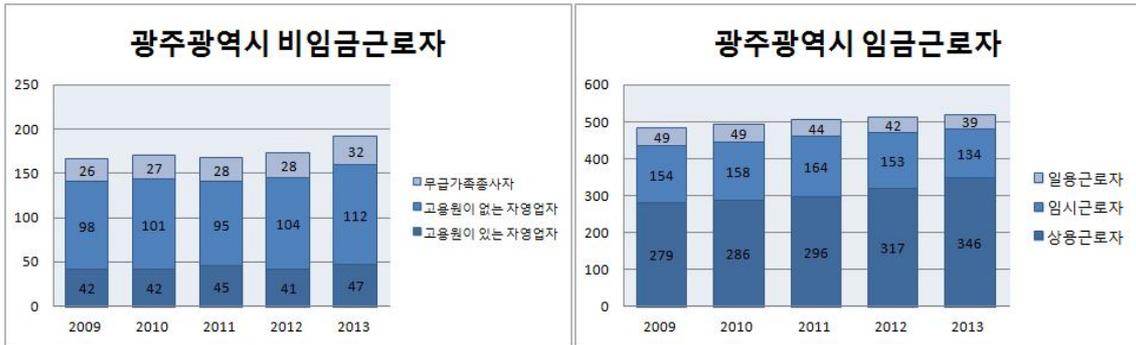


-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을 성별로 분류해 보면 작년 광주광역시 고용지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개선에 의한 것임이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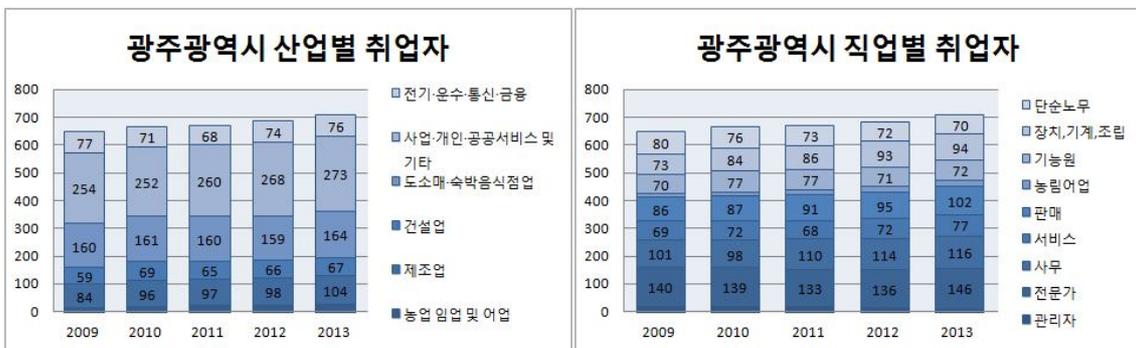


- 연령별로 보았을 때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짐. 특히 50대와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이 두드러짐.
- 종사상지위별로 보았을 때 모든 지위에서 취업자가 증가했으며, 특히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의 증가폭이 컸음.
-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소규모의 창업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유추됨.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일용·임시근로자 수는 감소한 대신 상용근로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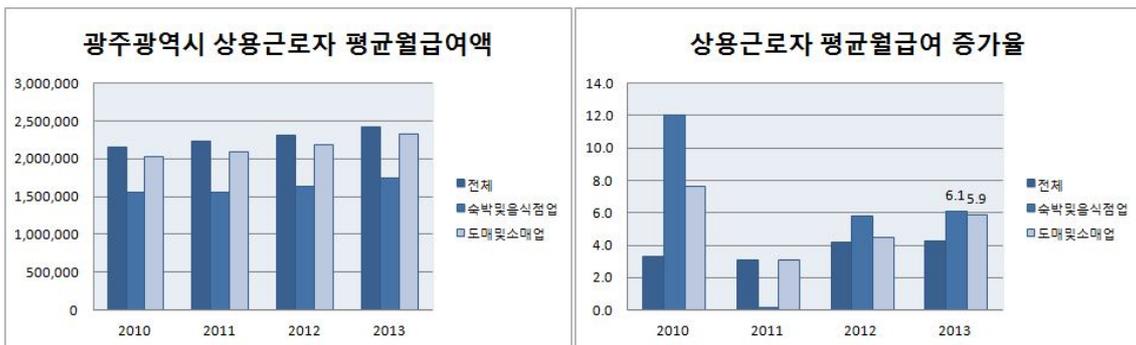




- 2013년의 취업자를 산업별로 구분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도소매, 제조업의 취업자 증가가 컸고 직업별로는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의 취업자 증가가 컸음.



-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의 평균월급여액은 전체 상용근로자의 평균월급여액에는 미치지 못하나 2013년 이들 업종의 월급여 증가율은 전체업종 평균 증가율을 넘어섬.



- 위의 자료들로 미루어보아 광주광역시의 고용지표는 50대 이상 여성들이 도소매 판매와 서비스업종에 창업 또는 상용근로자로 취직함으로써 개선되고 있고, 소득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됨. 반면, 20대에서 40대까지 남성의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고 소득 증가율도 낮다고 유추할 수 있음. 특히 20대의 경제활동 위축은 광주광역시의 지속적인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임.